甲辰年 2024근하신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옥과고등학교 우암문화재단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펠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16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1월 21일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신당 영향력 한자릿수 '미미'… 호남 표심 영향 없을 듯

갑진년 총선의 해, 여야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총력 승부
이준석 신당에 관심…이낙연 신당 지지는 광주·전남서 6% 그쳐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총선의 해'가 밝으면서 '청룡의 여의주'를 누가 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여야는 각각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한 치의 양보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운영의 원동력을 얻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섰다. 시간이 갈 수록 정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호남으로서도 이번 총선을 통해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여야 모두 전 대표들이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각 신당의 지지세와 여야의 지지율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당 반대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중앙일보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낙연 신당 출범시 지지 정당 변경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가 바꿀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정당 변경 의향'이 있다는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출범한다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라는 질문에 74%는 바꿀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18%는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모름 혹은 응답거절이 8%에 달했다. 지지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18%) 중 9%는 이준석 신당을, 7%는 이낙연 신당을 지지 정당으로 선택했으며 2%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이들 신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세가 20%에 가깝다는 사실은 여야 기성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신당 창당의 과정이나 참신성 여부가 신당의 성공을 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세는 9%인데 반해,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세는 7%로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세는 전국적으로 7%, 광주와 전남·북지역 6% 수준인 까닭에 민주당의 텃밭이자 진보층의 유권자가 많은 호남지역에서 국회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후보를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인 엠브레인퍼블릭이 경향신문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총선에서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어느 신당을 뽑고 싶은지 묻자 이준석 신당이 25%, 이낙연 신당 12%, 용혜인 신당 6%, 금태섭 신당 4% 등의 순으로 나왔다. 또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여론조사에서는 총선 신당 후보에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율이 70%가 넘는 가운데, '표를 주겠다'는 비율은 이준석 신당이 18%, 이낙연 신당과 조국 신당 20%, 새로운 선택 13% 등으로 나타났다.

◇'정권안정론' 대 '정권심판론'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따르면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야 모두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조사에 따라 무당층의 비율이 30%안팎에서 형성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도권의 민심도 심상찮아 여야 그 어느 쪽의 승리를 점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면서 총선 정국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구축하면서 일부 구설수에 오른 비대위원을 빠르게 교체하는 등 여론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중진의 출마 포기와 험지 출마 등 눈에 띄는 변화를 주면서 총선 채비의 고삐를 쥐고 있다.

180여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총선 결과에 당의 운명이 걸렸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닌 다수 당의 힘으로도 현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야당 심판'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민주당은 극심한 분열에 빠질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정의당과 진보당도 '총선 성적표'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호남의 선택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121석에 달하는 수도권으로 손꼽힌다. 이는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가량이며, 전체 의석(300석)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영호남 등 지역에 따른 여야의 지지층이 견고한 상태에서 총선 전체 판세는 수도권의 민심에 달렸다. 수도권을 선점한 진영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도권 표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호남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호남출신 지역민 비율이 높고, 과거 각종 선거에서 호남 표심이 수도권 유권자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4면으로 계속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4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소설 - 유재연 '벽장 밖은 어디로'
▲시 - 엄지인 '파랑'
▲동화 - 정화영 '내 친구 오로라 케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떠나 비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군 공항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할 것을 협의함에 따라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지역 현안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여전히 험난한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광주와 전남이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 시도민에게 행복한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0.5초 간격으로 촬영해 포토샵 레이어 작업을 통해 만들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생 경제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

윤 대통령 2024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는 '민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다.

이외에도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산업(9회), 회복(6회), 일자리(5회)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추구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간 72주년

광주일보 창간 72주년을 상징하는 엠블럼. 매일 새로운 태양은 떠오르며, 현재는 미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 밝은 빛을 뿜어내는 장면을 형상화해 72를 담았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남, 소나무 가치 살린다 ▶10면
갑진년 띠풀이·운세 ▶11면
세계문화도시를 가다 - LA ▶13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24·25면
2024 스포츠 이벤트 ▶28면

광주은행
내일을 키우는 금융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내라! 광주·전남, 날아라! 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甲 辰 年
상생동행